

---

# 대학글쓰기 에세이 과제

---



과목	대학글쓰기
담당 교수	김남호
학과	사회복지학과
학번	202311432
이름	김륜경

# 목차

I. 서론 .....	3
II. 본론 .....	4
2-1. 무너진 여성 인권	
2-2. 희생과 후유증이 따르는 전통	
2-3. 의식의 변화 필요	
III. 결론 .....	6
IV. 참고문헌 .....	8

주제: 조혼, 여성할례, 명예살인은 그 문화권의 오랜 전통인가 아니면 폐지되어야 할 악행인가?

제목: 언제부터 전통문화가 인권을 침해했는가?

**흠 잡을 곳이 없이 좋은 에세이를 작성하였음!**

## I. 서론

오늘날 우리가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필요로 한다. 좁게는 행복, 건강, 의식주가 있고 넓게 보면 권리나 법, 다양한 정책이 있다. 이렇게 많은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인권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여성 인권의 경우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른 국가들도 예전보다 인식이 많이 나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 순간에도 여전히 여성의 기본적인 인권과 건강을 침해하는 행위가 몇몇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예가 조혼, 여성 할례, 명예 살인이다.

앞서 말한 세 가지 관습의 경우에는 예전부터 많은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여성 할례란 여성의 생식기 일부를 절제해 손상을 입히는 행위이다. 여성 할례의 경우 1)유니세프가 조사한 22년 여성 할례 대륙 보고서에 따르면, 약 1억 4천만 명 정도의 소녀와 여성들이 할례를 경험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할례는 처음에는 악으로부터 여성을 도와준다는 의미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여성들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하지 않으면 마을 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순결하지 못한 자”와 같은 인식으로 혐오를 받는 경우도 많다. 또한, 할례를 하지 않으면 결혼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강제로 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아주 어린 나이인 7세 정도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빈번하다. 조혼은 어린아이를 일찍 혼인시키는 관습이다.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 경제적인 이유로 조혼이 늘어나고 있다. 2)세이브더칠드런의 글로벌 보고서에 의하면 방글라데시, 네팔 등의 남아시아를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매년 9백만 명에 가까운 어린 소녀들이 조혼의 위험에 놓여 있다. 조혼의 가장 큰 문제점은 어린 소녀들의 의사가 고려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조혼은 조혼 대상자인 소녀들의 의사는 필요하지 않고 모든 일이 어른의 대화에서 끝이 난다. 조혼 대상이 되는 소녀들의 평균 나이는 12세에서 16세이다. 그리고 대부분 18세에 출산하는 경우가 많다. 18세는 우리나라의 경우 겨우 고등학교 2학년의 나이이다. 아직 보호를 받아야 하는 나이에 아이가 아이를 낳고, 누군가의 보호자가 되고 있다. 심지어 혼인을 이유로 이들은 교육의 기회조차 빼앗긴다. 명예 살인 같은 경우에는 집안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이유로 가족 구성원을 죽이는 관습이다. 어쩌면 명예 살인이 세 가지 관습 중 가장 비인권적인 행위라고 볼

1) 김유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10년 내 소녀 4,500만 명 조혼 위기”, 2022년 6월 23일 수정, 2023년 11월 22일 접속,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48418>

2) 세이브더칠드런, 기후위기 속 조혼을 강요받는 여아들, 세이브더칠드런 블로그, 2023년 10월 11일 수정, 2023년 11월 22일 접속, <https://blog.naver.com/savethechildrenkr/223233740532>

수 있다. 명예 살인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모순적이다. 과연 살인에 명예와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 현재 명예 살인 사건들을 보면 단순히 자녀가 독립했다는 이유나 정략결혼을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가족들에게 살해를 당했다. 이러한 단순한 이유가 자신의 자녀들을 살해할 정도로 집안의 명예를 떨어뜨린 것이 맞는지 의문이다. 명예를 살인으로 회복한다는 것은 절대 명예로운 것이 아니다. 살인은 근본적으로 명예로울 수 없으며 사회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러한 관습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타나는데 그중에서는 정확히 어떤 관습인지에 대해 모르고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다. 또는, 이에 대해서 야만적이고 미개한 문화라는 반응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고유문화로 이해해야 한다는 반응으로 엇갈리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적인 특징은 특정 종교권이나 대륙 지역의 전통적 문화적 관습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비인권적인 행위가 문화적 전통이라는 이름 뒤에서 계속 자행되어야 할 자격이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문화적 전통은 오래전부터 시작된 고유한 것은 맞으나 가치 있고, 모두가 그 문화에 동의하는 의미와 행복이 클 때, 올바른 전통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처럼 강제적으로 여성을 고통과 트라우마에 갇히게 만드는 행위는 오랜 전통이 아닌 악행이므로 폐지되어야 한다.

## II. 본론

### 2-1 무너진 여성 인권

어느 날 갑자기 가족이 나를 20살 이상 차이가 나는 모르는 사람과 혼인을 시키거나 내 몸에 강제로 해를 입히는 행위를 나의 동의 없이 무조건 해야 한다면 당신은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은가?. 물론 현재 우리에게 별다른 일이 아니기에 와닿지 않을 수 있다. 그렇지만 저 상황을 상상했을 때, 아마 잠깐의 생각에도 이해할 수 없거나 용납할 수 없는 기분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놀랍게도 방금 당신에게 물음을 던진 내용이 소수 민족 여성들에게는 이미 벌어진, 곧 벌어질 일들이다. 우리는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하거나 실행할 때, 우리의 의견을 내세울 수 있으며 우리의 의사 또한, 존중된다. 그리고 그럴 권리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여성 할례, 조혼, 명예 살인과 같은 관습에는 모두 당사자들의 의견과 의사 그리고 인권, 권리 자체가 보장되지 않는다.

이처럼 인간에게 주어진 인권과 그 안에 수많은 기본적인 권리들이 그들에게는 가지는 것조차 어렵다. 한편으로는 이런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도 분명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왜 굳이 여성 인권만 중요하게 여기는가? 혹은 모든 여성들이 그 관습에 반대하는 것이 아닌데 악습이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가? 등의 반응을 보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런 의견을 내세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남성 할례가 존재하기도 하고, 명예 살인의 경우에도 대상이 여성이 아닌 남성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혼의 경우에는 남아선호 사상 때부터 시작된 관습이기에 거의 대상이 어린 소녀이다. 그리고 “여성” 할례라는 단어에 여성이라는 단어가 붙은 만큼 여성에게 이

러한 의식이 더 많이 자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명예 살인 같은 경우에는 남성이 살해당하는 경우도 있으나 거의 대부분의 대상이 여성이다. 3)유엔에 따르면 매년 전 세계 명예 살인으로 희생되는 여성이 5천여 명으로 추정된다고 보고했다. 이처럼 대부분의 대상이 여성인 만큼 여성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관습에 대해 여성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옹호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여성들이 관습에서 벗어나길 원하고 있으며 만약 악습이 아니었다면 많은 인권 단체와 기관 그리고 피해 여성들이 이런 관습을 없애거나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일도 없지 않았을까? 라고 말하고 싶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권리 중 하나가 생명권이다. 그러나 할례, 살인과 같은 행위로 생명권의 위협을 받고 있다. 이들도 인간으로서 생명권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더불어 행복할 권리, 교육받을 권리, 저항할 권리 등 기본적인 인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2-2 희생과 후유증이 따르는 전통

조혼, 여성 할례는 인권 침해뿐만 아니라 많은 희생과 후유증을 유발한다. 특히, 심각한 후유증으로 인하여 여성들이 평생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관습을 이어가는데 희생이 따른다는 점이 이상할 수도 있다. 앞서 조혼이 늘어나게 된 원인으로 기후 변화를 언급한 부분이 있다. 기후 변화로 인한 기후 위기를 겪은 지역은 가뭄과 식량부족으로 가정과 생계가 파괴하여 경제적인 수단을 멈춰버렸다. 이때, 궁지에 몰린 가족들이 소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조혼을 강요하기 시작한다. 짐바브웨의 일부 지역에서는 한 끼 식사를 위해 혹은 소, 곡물, 돈을 대가로 조혼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복합적인 이유가 소녀들이 중등 교육 과정을 지속하지 못하고 18세 이전에 혼인이 많이 존재하는 이유이다. 그리고 경제적 빈곤이 심할수록 조혼의 대상이 되는 어린아이들의 희생을 당연하게 요구하고 아이들 또한, 가족을 위해서 별다른 대책의 마련이 없기 때문에, 자신을 희생한다. 즉, 보호받아야 할 아이가 부모를 보호하는 셈이다.

생계를 위한 강제적인 희생도 문제지만 다양한 후유증도 문제이다. 조혼한 여아들은 어린 나이에 출산 경험을 가지기 때문에, 임신 중독이나 자궁내막염 등의 합병증 발병률이 높다. 또한, 아직 신체가 다 발달하지 않았고, 성적인 부분의 지식도 부족한 상태이기에 후천성 면역 결핍증에 걸리기 쉽다. 그리고 합병증은 아니지만, 신체가 성숙하지 않은 아이들이 출산한 신생아는 저체중, 영양실조, 조산 등의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임신 상태에서는 안정을 취해야 하는데, 집안일을 계속하다 보니 신생아에게도 영향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할례 같은 경우에는 의료적인 치료나 전문가를 통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고통을 여성이 느끼며 참아야 한다. 할례는 통증 및 출혈과 더불어 비위생적이므로 감염으로 인한 후유증이 생기는데, 감염의 경우 파상풍이 대부분이고, 과다출혈로 인한 쇼크사, 편두통 등의 증

3) 전연남, 독립한 딸 살해... '명예살인' 아니라 '추악한 살인' 2023년 2월 6일 작성, 2023년 11월 22일 접속,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069494](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069494)

상을 겪다가 심각하면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문제로 할례를 받고 하루 만에 여성들이 목숨을 잃은 사건들이 많아졌다. 이렇듯 신체적인 고통도 문제가 되지만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평생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문제도 있다. 할례는 어린 시절에 받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15세 생일이 되었을 때, 받거나 성인 초반에 받게 된다. 어릴 때, 받은 기억도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는 상황에서 모든 상황을 기억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는 아마 더 고통스러울 것이다. 더군다나 할례를 받은 여성들은 여성으로서의 정체성 혼돈과 수치심을 느낀다.

이와 같이 신체적, 정신적 측면에서 고통이 발생한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전통적 문화라고 여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여성들이 원해서 한 행동이 아니지만, 모든 합병증과 고통의 책임은 여성의 몫이다. 과연 이게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이처럼 단순한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여성들이 살아가는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다. 여성이 받는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관습 실행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결과에 초점을 뒀야 한다.

### 2-3 의식의 변화 필요

마지막으로 조혼, 여성 할례, 명예 살인과 같은 관습들의 폐지를 위해서 소수 민족의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이 문제는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지금도 많은 단체에서 인식 개선 캠페인이나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인권 단체의 경우 아직 이런 관습이 허용되는 국가를 대상으로 폐지 요구를 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깊은 전통적 문화라 자리 잡은 그들의 생각을 단시간에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때문에, 그들이 서서히 여성의 고통에 대해 인지하고 상처와 치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시작과 과정이 어려울 수는 있지만, 피해 여성의 자유와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다.

## Ⅲ. 결론

앞서 계속 언급했듯이 조혼, 여성 할례, 명예 살인은 전통적 문화라의 명목하에 정당화될 수 없다. 이는 여성에게 너무나 많은 정신적, 육체적, 인권 유린적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누군가는 그냥 여성들이 이러한 문화에 적응하고 받아들였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받아들여진 것이라기보다는 주변 상황으로 인해 강제로 행해졌다고 볼 수 있다. 인권이 중요시되는 세상에서 여성의 의사가 거의 고려되지 않는 행위를 우리는 비인권적인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단순히 여성이라는 이유로, 그 지역의 일원이라는 이유로 이러한 관습을 따라야 한다는 의견에 이견 대체 누구를 위한 관습인가?에 대해 묻고 싶다.

이러한 관습이 전통적인 이유로 계속 자행되어야 한다면, 관습의 결과로 나타나는 희생, 고통, 후유증은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는가? 그리고 계속 이어가기엔 현재 관습의 대상이 되고 있는 여성과 소녀들의 연령이 너무 어리다. 한창 꿈을 가지고 공부할 나이의 청춘들에게 이러한 가혹행위는 이제 멈춰야 한다. 더불어 조혼과 같이 여성들

의 희생을 당연시 여기는 가족 구성원 그리고 무관심한 정부의 태도를 변화시켜 여성들에게도 행복한 삶을 누릴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아직 늦지 않았기에 앞으로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라고 사람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고 이제는 조혼, 여성 할례 등 전통적 악습을 폐지하여 여성의 자유와 행복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IV. 참고문헌

최석진, “전세계 2억명의 소녀들이 '할레'의 고통에 신음하고 있다...나도 그 중 한 명이었다”

<http://www.wikileaks-kr.org/news/articleView.html?idxno=138386>

(2023.11.22. 접속)

김유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10년 내 소녀 4,500만 명 조혼 위기”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48418>

(2023.11.22. 접속)

송현서, “7살 때 할레를 당했습니다”...女 90% 희생되는 ‘악습’의 정체“-나우뉴스

<https://nownews.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604601008>

(2023.11.22. 접속)

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 [글로벌 보고서] 기후위기 속 조혼을 강요받는 여아들- 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savethechildrenkr/223233740532>

(2023.11.22. 접속)

전연남, 독립한 딸 살해...‘명예살인’ 아니라 ‘추악한 살인’-SBS 뉴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069494](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069494)

(2023.11.22. 접속)